

경제

금호타이어 '노노갈등'에 더 꼬인다

일부 강경파 노조원 사무실 점거 업무 마비

20일 동의서 제출 시한 불구 협상조차 못해

금호타이어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더니, 일부 강경파가 노조 사무실을 점거해 노조 업무가 마비되는 등 '노노갈등'이 노사 재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자회 등이 지난 9일 노조 사무실을 점거, 노조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들은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투쟁과 교섭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대외위원회를 무산시킨데 이어 폭력을 동원, 노조 사무실마저 점거해 노조 업무를 마비시켰다. 이들은 합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 돌리면서 채권단에 부과된 금수조회의 직접 교섭, 비상 공동투쟁본부 구성, 총파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지난해 노사협상 과정에서도 집행부를 탄핵하는 등 사사건건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 점거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부결 운동을 주도하고 교섭의 발목을 잡았던 그들의 행태는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그들이 낫다고 주장한 법정관

리는 국내 공장 폐쇄를 고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가 출사표하게 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점거를 끌고 간부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노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진행돼야 할 노사 재협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채권단이 오는 20

일까지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등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워크아웃) 손을 떼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시간이 없는데 협상 파트너조차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공업용제인 솔벤트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마신 용제는 독성이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 대상자인 김씨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직후 채권단에 서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오는 20일까

지 경영 정상화 계획과 구조조정 등

의서를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그 때

까지 기시작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죽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아웃소싱 대상으로 분류된 생산직 김모(46)씨가 작업 도중